

숲이 있어 즐거운 삶

숲이 주는 청량함, 숲이 주는 아름다움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입니다.
숲이 있어 우리는 행복하고
숲이 있어 우리는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런 숲에 속삭여 주세요.
고맙고 사랑한고요!

www.forest.go.kr

산림청



ISSN 2383-6849

Vol. 12
May
June
2016

울산 남산과 대나무

MAGAZINE 숲

발행일 2016년 6월 15일
발행 산림청
발행인 신원섭
기획 대변인실 magazinesup@korea.kr
기획/편집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사진 스튜디오 KENN

〈magazine 숲〉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 문화 전문 매거진입니다.
〈magazine 숲〉은 한국 간행물 윤리 강령 및 신철 요강을 준사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대나무

竹

바람에 부딪히는 댓잎 소리는
어떤 악기가 내는 소리보다 아름답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푸름을 자랑하는 대나무의 잎과 줄기는
사계절 내내 마주할 수 있는 싱그러움입니다.

비어 있는 속은 채움을 알려주고
곧게 뻗은 줄기는 절개와 의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번 호 매거진 숲은
소박하지만, 어떤 나무보다 아름다운
대나무를 찾아 떠났습니다.

Vol. 12
May
June
2016

Contents

울산 남산과
대나무





4. 단상
커지는 삶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나무
– 대나무

6. 여행
대나무는 살랑살랑 춤추고
바다는 넘실넘실 춤추고
– 울산 십리대밭 · 대왕암공원

12. 역사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
– 신라 48대 경문대왕과 대나무

16. 과학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 대나무 특징

18. 인포그래픽
늘 푸른 나무
늘 좋은 나무
– 대나무 정보

20. 월드 트래블
유럽 정원의 표본
–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22. 가드닝
손쉽게 기르는 재미 꽃보다 다육
– 다육식물

26. 산 그리고 사람
인생, 끊임없는 기록의 여정
– 전영애 여백서원 운영자

30. 약초도감
삼만큼 효능 만점
– 백선

32. 어떤 날 숲
한 걸음 더 가까이
– 인천 송도 미추홀공원

36. 그린 테이블
아삭아삭 식감을 살린 그린 테이블
– 눈개승마, 죽순

38. 숲에서 자라는 가치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연학교
– 연천 고대산 산촌생태마을

42. 캠핑
두 바퀴로 만끽하는 캠핑의 즐거움
– 자전거 캠핑

46. 산촌일기
산으로 들로 생명이 가득한 계절
– 세 번째 이야기

50. 아트테라피
몸과 마음이 행복한 아트테라피
– 대나무

52. 독자 메시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 독자 엽서

표지 일러스트
박지애

www.forest.go.kr

〈magazine 숲〉의 앱 매거진을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Special

竹

단상

커지는 삶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나무

대나무의 삶은 올곧습니다. 뿌린 그대로 자라, 뿌린 그대로 살아가죠. 대나무의 푸른 빛깔은 또 어떤가요. 사계절 내내 푸름을 유지하죠. 선인들이 대나무를 절개와 의리라 표한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나무는 평범하지만, 참으로 특별한 나무입니다. 성장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나무와 조금 다르거든요. 대나무의 '마디'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나무의 생장점은 대부분 가지 끝에 있는 반면, 대나무의 생장점은 바로 이 마디에 있습니다. 각각의 마디마디마다 생장을 하는 생장점이 있으니, 자라는 속도가 굉장하죠. 그렇게 성장하는 대나무는 수직으로 쭉쭉 잘도 자랍니다.

대나무의 속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대나무의 속은 텅 비어있습니다. 덕분에 악기를 만드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렇게 만든 악기는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했습니다. 소설가 이외수는 그의 책 〈감성사전〉에서 대금(大笒)의 소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금 하나로 이 세상 모든 한을 잠재우고 대금 하나로 이 세상 모든 혼을 선계로 이르게 한다"

대나무의 특별한 속성 덕분에, 대나무는 다양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곧게 자라는 성질은 '절개'와 '지조'를, 텅 빈 속은 무언가를 채워야한다는 '득도'를 의미하죠. 소설가 김훈은

"대나무의 삶은 두꺼워진 삶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삶이다.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두꺼워지지도 않고 다만 단단해진다. 대나무는 그 인고의 세월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대나무는 나이테가 없다. 나이테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다."

라며 대나무를 묘사했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채우는 삶이 아니라, 대나무처럼 비우는 삶은 아닐는지요.

Special

竹

여행

대나무는 살랑살랑 춤추고

바다는 넘실넘실 춤추고

울산 십리대밭 · 대왕암공원

몸이 파김치가 되어 축축 처지는 때가 있다.
일찌감치 잠을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곤이 가시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울부짖으며 찾는 곳이 있다. 자연이다.
지긋지긋한 일상에서 탈출해 산으로 바다로 도망간다.
일상의 지루함도, 관계의 복잡함도 자연에서는 찾기 힘든 풍경이다.
자연의 에너지만이 나를 가득히 채워주는 순간, 자연으로 향했다.

생명의 강으로 재탄생한 태화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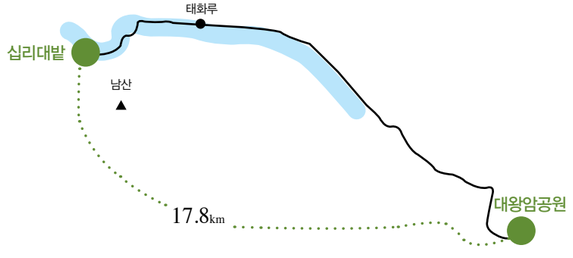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은 어떤 계절보다 풍요롭고 아름답다. 싱그러운 이파리들, 파란 하늘, 선선한 바람까지, 어느 것 하나 모자라지 않다. 울산역을 빠져 나오니, 맑고 파란 하늘이 제일 먼저 반긴다. 눈부신 볕이 살결에 오롯이 닿아 뜨겁긴 하지만, 적당히 부는 바람에 더위도 뜨거움도 씻겨 내린다. 태화강으로 향했다. 울산역에서 태화강까지는 차로 대략 30분 거리. 태화강 근처에 다다르니, 울울창창한 대나무 숲이 보이기 시작했다. 파란 대나무 잎이 바람에 나부낀다. 대나무 숲 뒤편으로 불끈 솟은 남산은 또 어찌나 푸르던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청량함을 한껏 들이마신 기분이다. 마음이 다급해진다.

이른 아침부터 태화강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귓가에는 듣기 좋은 음악이 흐르고 바람은 강변을 따라 솔솔 불어온다. 여행자의 마음을 딱 설레게 하는 분위기로 가득하다. 사실 태화강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 1970년대까지 태화강은 국내 최대의 바지락 종패 생산지였다. 이곳 하구에 서식하는 바지락은 전국 명물로 손꼽힐 정도로 사랑받았다. 그만큼 이곳의 수질이 깨끗했다는 증거다. 하지만 1962년, 정부는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공포한다. 하루가 다르게 공장폐수와 생활하수가 하천에 흘러들었다. 죽은 물고기가 강위로 둥둥 떠다녔고 물은 검게 변했다. 잘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 검은 어둠으로 점철된 것이다.

이후 자연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심각해지는 상황을 더는 두고만 볼 수 없었다. 울산은 새로운 공중의제를 제시했다. '생태도시 울산'이다. 2004년, 울산은 '에코폴리스 울산'을 선언했다. 위기에 처한 태화강을 살리기 위해 '태화강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고, 긴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태화강은 재생하는 데 성공했다. 2007년부터 태화강 수질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수질이 좋아지기 시작하자 강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죽거나 사라졌던 여러 생물이 태화강에 다시 몰려든 것. 연어가 회귀했고, 철새가 찾아왔다. 그렇게 태화강은 자연이 숨 쉬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1.



1.
이른 아침부터 십리대밭은 사람들로 붐볐다.

2.
강변을 따라 약 10리에 걸쳐 군락을 이룬 십리대밭

3.
쭉쭉 뻗은 대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선 십리대밭. 대나무의 음이온은 뇌의 알파파 활동을 증가시켜 심신을 편안하게 해준다.

대나무가 춤추는 생태도시

태화강 강변을 따라 슬렁슬렁 걷다보니, 울산의 명소 '십리대밭'이 나왔다. 삼호교에서 용금소까지 강변을 따라 약 10리(4.3km)에 걸쳐 군락을 이뤄, 십리대밭이라 불린단다. 울산 최초의 읍지인 〈학성지〉에 '오산 만회정 주위에 일정 면적의 대나무 밭이 있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아주 오래전부터 대나무가 이곳에 자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십리대밭을 알리는 안내판을 따라 숲길에 들어섰다. 대나무가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 있다. 이제껏 보아온 나무 중 가장 키 큰 나무인 듯 싶다. 바람에 부딪히는 낙엽 소리가 퍽 듣기 좋다. 요란스럽지 않게 딱 적당한 정도로, 살랑살랑 흔들린다. 공원을 걷다 보니, 편안한



2.

태화강대공원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내오산로 67
- 문의 : 052-229-6144

3.





4.

태화루

- 주소 : 울산 중구 태화로 300 태화루
- 문의 : 052-211-0888

5.



복장으로 숲길을 걷는 사람들이 제법 보인다.
숲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람의 결에 따라, 바람의 세기에 따라 다양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십리대밭의 소리는 무척 우아했다. 또 어떤 나무보다 차분했다. 빼빼 마른 몸매와 달리, 고상한 자태가 빛났다.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으면서도 우쭐대지 않았고, 서로 부딪히면서도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다.
십리대밭을 걷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든다. 아마도 대나무가 내뿜는 음이온 덕분일 것이다. 태화강 십리대밭의 음이온을 분석한 결과, 공기 1㏄ 당 1,500~1,800개의 음이온이 있음이 밝혀졌다. 음이온이 공기 1㏄ 당 1,000개 이상으로 풍부해지면, 뇌의 알파파 활동을 증가시켜 심신을 편안하게 해준다. 또 음이온은 혈액을 맑게 해주고 저항력을 증가시켜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다. '맑다'는 느낌이 나름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게다.



6.



7.

4.
초화단지에 심어진 빨간 꽃양귀비가 태화강을 물들였다.

5.
태화루는 조선초기 영남의 3대 누각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소실되었다가 다시 재건됐다.

6.
대왕암공원에 자리한 송림길. 시원한 바람과 상쾌한 향기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7.
대왕암. 붉은 빛 바위가 짙푸른 동해 바다와 어우러져 진풍경을 자아냈다.

대왕암공원

- 주소 : 울산 동구 일산동 산907
- 문의 : 052-209-3754

숲 산책로를 나와 왼편으로 난 길을 따라 걸으면 꽃양귀비로 가득한 초화단지가 나온다. 빨간 꽃양귀비가 빼곡하다. 붉은 선혈이 태화강 강변을 물들인다. 초화단지를 돌아본 후, 몇 해 전 복원된 태화루를 보기 위해 발걸음을 돌렸다. 태화루는 조선 초기 영남의 3대 누각으로, 임진왜란을 겪으며 소실됐다. 이후 울산은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태화루를 복원했다. 2014년 복원된 태화루는 시민의 쉼터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태화루에서 태화강과 십리대밭을 바라보는 일도 무척 즐거운 일이다.

푸른 바다 붉은 바위

아산로를 거쳐 대왕암공원으로 향했다. 대왕암공원은 울산 12경 중 하나로, 독특한 모양의 바위가 모여 있는 곳이다. 경치가 무척 아름다워

예부터 '해금강(海金剛)'이라 불렀고, 용이 승천하다 떨어진 곳이라 하여 '용추암(龍湫巖)'이라고도 불렀단다. 전설에는 신라 시대 문무대왕 왕비가 죽으면서 '호국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묻힌 곳이 바로, 이 바위섬이라 전해진다.
고래 모양의 조형물을 지나면, 대왕암 부근까지 이어진 송림길이 나온다. 소나무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무척 아름답다. 기묘했고, 신선하기까지 하다. 특히 소나무 향기가 참으로 좋았다. 바다에 가면 바다 특유의 비린내가 나기 마련인데, 이곳 송림길을 걸을 때만큼은 바다 비린내가 나지 않았다. 숲 근처에는 바다가 전혀 없을 것처럼. 그저 푸른 솔잎 향기만 솔솔 풍겨올 뿐이었다.
그렇게 이어진 송림길 끝에 다다르자, 시원스레 펼쳐진 바다가 조망된다. 바다는 무척 고요했다. 조업하는 배 몇 척만이 바다 위에 떠 있을 뿐이었다.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대왕암이 보인다. 짙푸른 동해 바다, 불그스레한 바위색이 어우러져 진풍경을 자아낸다. 바위와 바위를 연결하는 대왕교를 건너면, 좀 더 가까이에서 대왕암을 만날 수 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불그스레한 바위 색이 더욱 선명해진다. 뜨거운 해가 오롯이 바위로 쏟아져 발끝까지 뜨겁다.
혹자는 울산을 공업 도시라 말했고, 혹자는 울산을 심심한 도시라고 칭했다. 울산에서 나고 자란 이는 울산의 낯선 풍경이라며 신기해했다. 낯선 도시의 낯선 여행객이었던 나 역시, 동의하는 바였다. 하지만 고요 속에서 의미를 찾는 일은 무척 즐거웠다. 그래서 울산은 풍요로웠다. 바다와 강이 있었고, 숲과 나무가 있었으며, 도시와 삶이 있었다. 여행은 이처럼 숨은 보석을 찾아 떠나는 모험이니, 나름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어쨌든 힐링이라는 목적과 발견이라는 의미를 충분히 달성한 여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풍요로움이었다.



역사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

신라 48대 경문대왕과 대나무

신라 제48대 경문대왕의 무덤은 없다.
하지만 경문대왕은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인물이다. 『삼국유사』의 설화 덕분이다.
'당나귀의 귀를 가진 임금'이라는 설화는 1141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기억에 남아 있다.
사실, 경문대왕의 설화를 낳은 주인공은 도림사의 대나무다.

글. 강판권(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일러스트. 정윤미

경문왕의 비밀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지만, 세상에 알려진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 사람들이 비밀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속에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상상할 수 있어서다. 그래서 비밀은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시조 박혁거세부터 마지막 왕인 56대 경순왕까지, 992년간 존속했던 신라의 역사에는 수많은 비밀이 있었다. 하지만 48대 경문왕만큼 강력한 비밀을 가진 왕은 드물다. 나는 경문왕이라 하면, 그의 당나귀 귀에 대한 기억 외에 다른 기억은 거의 없다. 신라사 전공자들조차도 경문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낮은 편이다. 딱히 주목할 만한 업적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자가 그를 신라 개혁 군주로 평가하지만, 관련 연구자에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이유는 뛰어난 후손이 없어서다. 경문왕은 3남 1녀를 두었다. 그 중 첫째가 49대 헌강왕, 둘째가 50대 정강왕, 막내이자 외동딸이 51대 진성여왕이었다. 헌강왕과 정강왕의 무덤은 경주 남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지만,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진성여왕의 무덤은 현재 아버지 경문왕처럼 찾을 길이 없다. 무덤의 규모와 관리 수준은 후대의 관심을 가늠하는 잣대다. 경문왕과 진덕여왕의 무덤이 없는 것은 그만큼 후손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뜻이다. 만약 경문왕의 자식들이 유능했다면 아버지의 무덤은 반드시 있었을 것이고, 그의 업적도 더욱 빛났을 것이다. 역사는 결국 살아 있는 자가 죽은

자의 업적을 기록하거나 평가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말이다. 그래도 경문왕의 '당나귀 귀' 설화가 남아있어, 지금까지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이다.

비밀을 품은 도림사의 대나무

경문왕 설화는 다음과 같다. 경문왕이 왕위에 오른 뒤, 갑자기 귀가 당나귀의 귀처럼 길어졌다. 두건을 만드는 복두장(幞頭匠)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평생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죽을 때에 이르러 도림사(道林寺)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다. 그 뒤에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숲에서 그 소리가 들렸다. 경문왕은 그 소리를 없애기 위해 대나무를 모두 베어 버리고 대신 산수유를 심었다. 그러자 "임금님 귀는 길다"는 소리만 났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자. 경문왕의 귀는 즉위와 함께 자라기 시작했다. 일반인도 나이를 먹으면서 귀가 조금씩 자라지만, 경문왕은 유독 길게 자란 게 문제였다. 경문왕은 남보다 훨씬 긴 귀에 강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다. 누구나 콤플렉스 하나 정도는 있다. 문제는 자신의 콤플렉스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다면, 그 상황은 심각하다. 경문왕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이미 복두장이 알고 있으니, 비밀은 더는 비밀이 아니다. 복두장은 생전에 경문왕의 비밀을 말할 수 없었다. 비밀을 누설하면 경문왕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죽음에 이르러서야 경문왕의 비밀을 말했다. 하지만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자신의 가족은 물론, 비밀을 들은 사람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도림사의 대나무는 그가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다.

복두장은 왜 하필 도림사 대나무에 경문왕의 비밀을 얘기했을까. 경문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현재 도림사의 정보는 없다. 다만 경문왕이 불교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신라는 불교 사회였기 때문에 왕이 불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도림사에 대나무가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경주에 대나무가 살기에 적합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신라에 대나무와 관련해서 미추왕과 죽엽군, 만파식적 등에 대한 얘기가 전해지는 것만 봐도 도림사의 대나무 얘기는 믿을 만하다. 문제는 왜 복두장이 하필 대나무에 경문왕 비밀을 얘기했을까를 해석하는 일이다. 보통 사람이 누군가에게 비밀을 얘기할 경우 상대방을 믿기 때문이다. 복두장이 대나무에 비밀을 얘기한 것도 이러한 상례에 비추어보면 대나무를 믿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하필 복두장은 대나무를 믿었을까. 복두장의 대나무에 대한 믿음은 이 나무의 생태에서 찾을 수 있다.

대나무는 우리나라 식물학자들이 나무로 분류하고 있지만, 나무와 풀을 구분하는 기준인 리그닌(lignin, 목질소)을 적용하면 나무가 아니라 풀이다. 리그닌은 세포를 불리는 요소를 말한다. 나무는 리그닌 때문에 자라면서 굵어지지만, 풀은 리그닌이 없기 때문에 성장



하면서 굵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다. 볏과의 대나무는 본성이 풀이면서도 나무로 불리는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다. 대나무의 또 다른 특성은 곧게 자라면서 속이 비었다는 점이다. 대나무가 속이 비었다는 사실도 풀이라는 증거 중 하나다. 그러나 나무는 섬유세포가 죽으면서 심재를 만들기 때문에 속이 비어 있지 않다. 다만 오동나무의 경우는 약간 비어 있는 듯하지만, 대나무처럼 완전히 비어 있지 않다.

속이 비어 있는 대나무의 특성은 복두장이 경문왕의 비밀을 얘기한 중요한 이유였을 것이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무와 달리 소리를 만들 수 있었다. 대나무가 만드는 소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소리보다 신비스럽다. 그 증거는 만파식적이다. 만파식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행을 제거할 수 있는 악기였다. 이처럼 대나무는 신라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복두장이 믿었던 대나무는 복두장에게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백성에게도 믿음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대나무는 복두장의 비밀을 듣고 내용을 약간 바꿔서 세상에 알렸다. 경문왕은 자신의 비밀을 대나무에게 고백한 복두장을 처벌하지 않고 자신의 비밀을 세상에 알린 대나무를 처벌했다. 도림사의 대나무는 복두장의 고충을 받아준 대가로 죽음을 맞이했다. 도림사의 대나무는 엄청난 희생정신을 발휘한 것이다. 역사에는 대나무처럼 누명을 덮어쓰고 목숨을 잃은 자들이 적지 않았다.

산수유의 꿈

경문왕은 대나무를 벤 자리에 층층나뭇과의 산수유를 심었다. 산수유는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편에서 조공품목으로 등재되어 있을 만큼 경주를 포함한 경상도에서 흔한 나무였다. 과연 대나무와 산수유의 교체는 무엇을 의미할까. 대나무를 제거했다는 것은 분명 경문왕의 반대 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경문왕을 반대하는 세력은 왕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권위를 흔들었다. 당시 경문왕은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866년에는 이찬 윤흥(允興)이 아우인 숙흥(叔興)·계흥(季興)과 함께 반란을 꾀하다가 발각되자 대산군(岱山郡)으로 도망쳤다. 경문왕은 그들과 일족을 모두 붙잡아 처형했다. 868년에는 이찬 김예(金銳)와 김현(金鉉) 등이 반란을 꾀하다 처형되었다. 아울러 874년에는 이찬 근종(近宗)이 반란을 일으켜 궁궐로 쳐들어왔다. 이처럼 이찬들의 반란은 경문왕에게 강력한 도전이었다. 반면에 경문왕은 요원랑(邀元郎)·예흔랑(譽昕郎) 등 국선 출신의 신진세력을 등용했다. 경문왕이 국선을 등용한 것은 자신이 국선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국선들은 <현금포곡(玄琴抱曲)>·<대도곡(大道曲)>·<문상곡(門詳曲)> 등 3수를 통해 전국에 다니면서 경문왕의 업적을 홍보했다. 따라서 산수유는 경문왕을 지지한 신진 세력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속이 비어 있는 대나무의 특성은 복두장이 경문왕의 비밀을 얘기한 중요한 이유였을 것이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무와 달리 소리를 만들 수 있었다. 대나무가 만드는 소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소리보다 신비스럽다.

늘푸른나무 대나무와 갈잎나무 산수유는 경문왕시대의 구세력과 신진세력간의 갈등을 상징하는 나무일지도 모른다. 나무는 언제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키지만, 권력은 언제나 옛것을 지키는 과정에서 부패한다. 신라 말 경문왕의 설화는 단순히 왕조말기의 전형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인생의 말로까지 암시한다.

나는 경문왕의 설화를 나무에 비유한 것에 주목한다. 왜 당시 사람들은 경문왕의 얘기를 나무로 풀이했을까. 그것은 바로 일상성이다. 대나무와 산수유는 늘 사람들의 주변에 살고 있다. 천 년이 지난 지금도 신라시대의 대나무와 산수유는 우리 곁에 살고 있다. 따라서 경문왕의 설화는 죽은 얘기가 아니라 살아 있는 얘기며,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의 얘기다. 대나무와 산수유가 살아 있는 한, 경문왕의 설화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과학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대나무 특징

시원스레 쭉쭉 뻗은 키, 푸른 녹색을 띠는 줄기, 뿌린 대로 거두는 올곧은 몸.
대나무를 '절개'와 '의'의 표상이라 함은, 대나무가 지닌 속성과 매우 닮아 있다.
대나무만큼 평범하지만, 비범한 나무는 없을 것이다. 특징도 많고 특이 사항도 많은 대나무.
대나무의 면밀한 속살을 들여다보자.



풀과 나무 사이

고산 윤선도(孤山 尹善道, 1587~1671)는 오우가(五友歌)에서 대나무를 이렇게 예찬했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가 시켰으며
속은 어이 비었는가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이 짧은 노래에 대나무의 모든 특징이 담겨 있다. 우선 대나무의 가장 큰 특징인 줄기를 살펴보자. 대나무 줄기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마디'가 있다. 줄기는 또 어떠한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다. 대나무처럼 이렇게 정직하게 성장하는 나무도 없을 것이다. 또 죽을 때까지 늘 푸른 모습은 어떤가. 이런 특징 때문에 예부터 선비들은 대나무를 절개와 의리를 상징하는 나무라 했다. '대쪽 같다'는 말도,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굳게 지키는 대나무에서 따온 말이다.

대나무는 나무인가? 풀인가? 나무이냐, 풀이냐 구분하는 것은 '비대생장(肥大生長)'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형성층의 활동으로 줄기가 해마다 굵어져야 나무이고 그렇지 않으면 풀인 것이다. 나무는 수피 바로 안쪽에 '형성층'이라는 세포분열조직 층이 존재한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세포가 분열하고, 이때 새로 만들어진 형성층이 세포 안쪽에 차곡차곡 쌓인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나무가 아름드리 성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나무는 형성층이 없다. 대나무가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가며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굵기가 굵지 않은 이유다. 따라서 대나무에 형성층이 없어 풀이라고 해석된다.

대나무 줄기는 첫 한 해만 자라고, 다음해부터는 더는 굵어지지 않고 키도 자라지 않는다. 대신 첫 해에는 놀라울 만큼 빨리 자란다. '우후죽순'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 죽순이 싹을 틔우고 나면, 2개월 내에 대나무는 다 자란다. 한 달 30일을 초순, 중순, 하순이라 나눈 '순(旬)'은 바로 '죽순'에서 나왔다. 죽순이 나온 뒤 10일 후면 대나무가 되어버리니, 서두루지 않으면 죽순을 먹지 못한다는 데서 온 것이다. 이처럼 대나무는 성장 속도가 빨라, '속'이 비어있다. 줄기의 벽을 이루는 조직은 대단히 빠르게 늘어나지만, 속을 이루는 조직은 세포분열이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나무는 식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나무는 왕대, 맹종죽, 이대, 오죽 등을 부르는 대나무군(群)인 것이다. 졸참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등을 일컫는 참나무군과 같은 맥락이다.

대나무에 꽃이 피면?

다른 식물은 꽃을 피워 번식한다. 하지만 대나무에 꽃이 피면 대나무는 죽는다. 헌데, 대나무가 꽃을 피우는 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란다.

대나무는 60년에 한 번 꼴로 꽃을 피운다. 번식하기 위해 꽃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대나무는 왜 꽃을 피울까? 여러 설이 있다. 60년 혹은 120년 꼴로 꽃을 피운다는 '주기설', 특정한 영양분이 소진되어 꽃을 피운다는 '영양설' 등이 있다. 허나, 아직까지 과학적로 증명된 바는 없다. 하지만 대나무에 꽃이 피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니다. 대나무의 꽃은 잎이 날 자리에서 핀다. 줄기에 꽃만 있으니 잎이 광합성을 해 양분을 만드는 일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듬해 죽는다. 따라서 꽃이 피면 땅속줄기까지 모조리 죽는다. 꽃이 피는 일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면, 꽃을 피우는 일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여전히 꽃의 비밀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Special

竹

인포그래픽

늘 푸른 나무

늘 좋은 나무

대나무 정보

대나무는 참 독특한 나무다. 죽순이 난 뒤 10일 후면 대나무로 우뚝 성장한다.
'우후죽순'이라는 말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셈이다.
이름에 '나무'가 들어있긴 하지만, 나무이기도 하고 풀이기도 하다.
성질도 다양해 쓰임새가 셀 수 없이 많다. 속이 텅 비어 단소 같은 악기도 만든다.
한 여름 더위를 날려주는 죽부인도 대나무로 만든다. 덕분에 대나무는 수많은 '상징'이 되기도 했다.
곧게 자라 지조요, 대쪽 같은 기질은 절개와 정절이요, 텅 빈 속은 득도를 상징했다.
이처럼 대나무는 군자가 본받아야 할 품성을 모두 지닌 나무다.
낭만과 풍류가 모든 지닌 나무는 대나무뿐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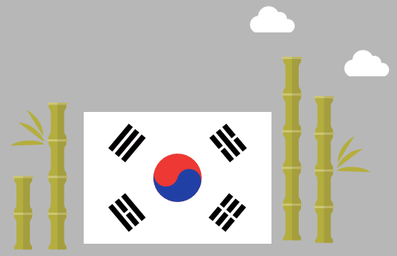
대나무 종류

❶ 전 세계에 자생하는 대나무 종류



*1,250*여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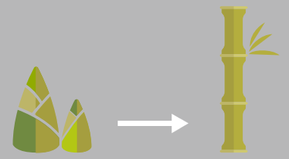
❷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대나무



*13*종

한 달을 초순 · 중순 · 하순으로 나누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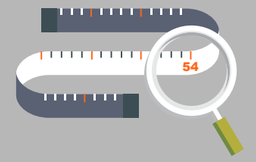
죽순 → 대나무



*10*일

한 달을 초순 · 중순 · 하순으로 열흘씩 묶어 순(旬)으로 표시하는데, 대나무 순을 죽순(竹筍)이라 하는 것은 싹이 나와 열흘(순)이면 대나무로 자라기 때문.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못 먹게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빨리 자라는 나무



54cm

하루 동안 자란 최고 기록

죽향(竹鄕)의 고장 '담양'



읍내 *4*리

352개 마을 중 대나무 밭이 없는 곳은
읍내 4개 리(理)뿐

대나무는 죽마고우(竹馬故友)

❶ 우리 몸을 건강하게!



죽염

- 살균 효능이 있다. 따라서 꾸준하게 섭취하면 체내에 쌓인 나쁜 독을 해독하는 데 효과가 있다.
- 소염작용에 좋아, 상처가 났을 때 소염제로 죽염을 사용해도 괜찮다.
- 죽염으로 양치를 하거나 가글을 하면 충치, 풍치에 좋다.



죽순

- 섬유질이 풍부해 장 활동을 원활하게 해준다.
- 콜레스트롤 흡수를 저하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당뇨병, 심장질환에 좋다.
- 죽순이 함유한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준다. 고혈압 예방, 혈압 조절에 좋다.



숯

- 음이온을 방출해 심신을 안정시켜준다.
- 냄새 제거가 탁월. 냉장고 악취, 묵은 쌀 냄새 등 각종 냄새를 제거한다.
- 전자파 제거에 탁월하다. 전도성이 뛰어나 정전기 발생을 방지한다.

❷ 다양한 공예품으로 활용하는 대나무



죽부인



대나무 악기
대금, 소금, 단소, 피리 등



채반, 광주리

유럽
정원의 표본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4세가 세운 곳이다. 처음엔 온통 모래 언덕과 늪지대였는데, 루이 14세가 여러 지역에서 나무를 가져와 이곳에 옮겨 심었다고 전해진다. 정원을 설계한 이는 당시 최고의 정원 설계자였던 '앙드레 르 노트르'다. 궁전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다. 정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도 많다. 인공 연못, 신화를 바탕으로 만든 조각상, 시원한 분수까지. 아름다운 풍경이 다양하게 즐비해 있다. 기하학적인 모양의 정원은 마치 꿈결에 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한다.

손쉽게 기르는 재미

꽃보다 다육

다육식물

이름은 하나이지만 종류는 만 가지에 달한다. 종류는 많으나 기르기가 무척 쉬워 식물 애호가는 물론
초보자에게도 각광받는다. 혹자는 다육식물로 재테크도 한다고 하니,
작지만 정말 강한 식물이다.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 단 하나의 식물조차 키운 경험이 없다면,
다육으로 '반려식물' 시작해 보자. 삭막했던 공간이 식물의 따스한 온기로 가득해질 것이다.

스타일링. 라비앙플레르

다육이, 어떻게 키울까?

한 번도 안 키워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키워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다육식물은 관리하기 좋아 모두에게 사랑받는다. 앙증맞은 크기에 다양한 모양까지, 남녀노소에게 사랑받기 딱 좋은 식물이다. 다육식물은 잎, 줄기, 뿌리에 수분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식물군이다. 서늘한 기후에서 자생하며, 저온기에 번식과 성장을 한다. 종류만 해도 4만여 가지나 된다.
다육식물은 건조하고 더운 기후에서도 잘 자란다. 강인한 생명력 덕분에 식물 기르는 데 애 먹는 초보자도 손쉽게 키울 수 있다.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알아둔다면.

❶ **빛** 집에서 빛이 가장 많이 드는 곳에 두자. 하루 4시간 이상 빛을 보게 하는 게 좋다. 만약 사무실에서 다육식물을 기른다면, 빛 좋은 날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일광욕을 시켜주자. 하지만 한 여름 강한 햇빛은 다육식물을 타게 할 수 있다. 창을 통과한 빛을 쐬게 하는 게 좋다. 장마 기간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햇빛이 부족해 잎과 잎 사이가 벌어져 웃자랄 수 있다.




1.


2.

Succulents
다육식물의 종류


3.


4.


5.


6.


7.

❷ 물 다육식물은 물을 주지 않아 죽는 경우보다, 물을 줘서 죽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물을 줄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두세 번째 잎을 관찰해, 힘이 없고 잔주름이 보일 때 물을 준다. 일반적으로 봄, 가을에는 3~4주에 한 번 준다. 습도가 심한 여름에는 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 겨울에는 제일 아래쪽 위치한 잎이 시들면 물을 준다. 어느 계절이든 뿌리가 젖지 않을 만큼 소량만 주는 게 포인트다.

❸ 온도 다육식물이 더운 사막 지역에서 왔으니, 우리나라 여름 날씨에도 잘 버틸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오해다. 사막의 낮은 뜨겁지만, 사막의 저녁은 기온이 뚝 떨어져 서늘하다. 우리나라 여름은 저녁이 되어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다육식물을 제일 서늘한 곳에 두자. 열기에 지친 다육식물에게 선풍기 바람 같은 달콤한 휴식을 선사하는 것도 좋다.

다육이, 어떤 걸 기를까?

❶ 언성 잎이 밤하늘의 별을 닮은 언성. 크라슐라속(Crassula) 루페스트리스의 일종이다. 잎이 층층이 탑을 쌓아 올려 다년생 수목형태로 자란다.

❷ 벨루스 벨루스는 여름을 좋아하지만, 햇빛에 쉽게 화상을 입는다. 직사광선 아래에 두는 것을 피해야 한다. 화상을 입으면 좁쌀 같은 두드러기가 올라오거나 가장자리부터 까맣게 타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번 생긴 상처는 잎이 말라 떨어질 때까지 회복하지 못한다.

❸ 천금장 기근이 발생하는 짧은 줄기에 잎이 6~8개 정도 생기며, 작은 로제트 형(뿌리에서 직접 생긴 잎이 지면에 붙어 난 잎)으로 자란다. 잎은 녹색으로 통통한데, 마치 물개처럼 적갈색의 점무늬가 있다. 잎 끝은 살짝 프릴모양이다.

❹ 데비 데비는 직광이나 반그늘에서 잘 자라고 건조에 강하다. 햇빛을 잘 받은 경우 붉게 물든다. 과습은 좋지 않아 흙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물을 준다.

❺ 웅동자 넓적한 모양, 오동통한 잎, 미세한 솜털, 마치 곰발바닥처럼 보이는 웅동자. 햇빛을 많이 보면 잎끝이 빨갛게 물든다. 나무처럼 위로만 자란다. 햇빛을 좋아하므로 햇빛이 강한 여름을 제외하고는 밖에서 기르는 것이 좋다.

❻ 십이지권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차광재배한다. 저온에 강한편이며 물주기는 봄, 가을에는 흠뻑 주고 여름철에는 물주기를 줄인다.

❼ 레드베리 건조한 기후와 햇빛을 좋아한다. 해를 많이 볼수록 더욱 더 선명한 붉은 빛깔을 띤다. 그렇지 않을 경우 초록색을 더 많이 띤다. 이때는 레드베리가 아닌 그린베리라고도 불린다.

Materials
재료



액자(깊이 4cm 이상), 다육식물,
작은 스푼, 상토, 가는 마사토,
비닐, 이끼, 철망, 모종삽,
접착제, 장식품(조개껍질, 조리개 등)

How to make
만드는 법

1

뿌리가 자랄 공간을 생각해 깊이 있는 액자(4cm 이상)를 준비합니다.

Tip. 시중에 깊이 있는 액자를 찾기 힘드시다면, 똑같은 크기의 액자를 2~3개 겹쳐 깊이감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액자 안쪽에 비닐을 붙여줍니다. 다육식물을 키우면서 물을 줄 때 튼튼한 방수 역할을 해줍니다.

2

다육식물이 잘 자라게 도와줄 공기가 잘 통하고, 물빠짐이 잘되는 흙(상토와 가는 마사토를 1:1로 섞는다)이 좋습니다. 흙을 모종삽으로 톡톡 두들겨 가면서 단단하게 고정시키면서 담습니다.

3

다육식물과 흙을 고정시키기 위해 철망을 잘라 덧대어 줍니다.

4

준비한 다육식물의 잔뿌리를 정리하여 줍니다.


5

다육식물이 심길 자리의 흙을 작은 스푼으로 살살 퍼냅니다. 그 다음 다육식물의 뿌리를 심어준 후, 다시 흙을 덮어줍니다.


6

다육식물을 모두 심은 후,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끼로 고정시킵니다.


7

준비한 돌과 조리개 장식, 조개껍질 등을 접착제로 붙여 다육액자를 완성합니다.



인생, 끊임없는 기록의 여정

전영애 여백서원 운영자

전영애 교수의 관념으로 보자면, 세상에는 어느 것 하나 사연 없는 것들이 없다.
세상은 사연들로 가득하고, 사연들은 모여 이야기를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그녀는 '여백서원'에 간직하고, 보살핀다.
모든 사연이 예쁘지 않은 것들이 없고, 애틋하지 않은 것들이 없다.
그래서 여백서원에는 세상의 모든 사연이 채움과 비움으로 넘나든다.

사람을 위한, 맑고 깨끗한 곳

여주 터미널에서 그녀가 산다는 걸은리는 그리 멀지 않았다. 15분을 달려 도착한 그곳에,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한 공간 하나가 서 있었다. 마을회관을 지나자 '이곳이구나' 감이 왔다. 여주 보금산 자락에 자리 잡은 전영애 교수의 여백서원. 지은 지 오래되지 않을 것 같은 서원에서 어떤 단단한 기운이 감지됐다. 여백(餘白)이 아니라, 이곳은 여백(如白)이다. 그녀가 오독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 흰 빛처럼 깨끗했다던 그녀의 아버지 호(號)에서 따와 지은 이름이다. 그녀의 마음처럼 처음에 여백이라 하여 '비움'을 생각했다. 그리고 진짜 의미를 알고 나니 '채움'이 떠올랐다. 하얀색 도화지 위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 다양한 세상이 펼쳐지듯, 여백서원은 맑고 고운 공간에서 나를 채우는 기회이다.

여백서원에 들어서서 입구를 찾지 못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단걸음에 나온 그녀는 무척이나 푸근한 인상이었다. 그녀는 바깥 풍경부터 먼저 보자고 했다. 여백서원은 '나무 고아원'이라 불리는 작은 정원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연 없는 나무들이 하나도 없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심은 '모송', 아버지가 떠오르는 '여백송', 독일 학회 학회장이 와 지은 '괴테송'까지. 나무에는 저마다의 이름과 사연이 더해져 있다. 대개는 그녀가 '구출'해 온 것들이다. 교정 계단 틈에 끼여 잘 자라지 못한 것들, 안쓰러운 마음에 이곳에 데려다 놓았다. 나무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는 '우전(友田)'으로 들어가 허브 잎을 주섬주섬 따기 시작했다.

"손님이 오면 우전에서 허브 잎을 따서 들어갑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물에, 겨울에는 따뜻한 물에 우려내 손님에게 대접하지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백서원은 서원이 품은 나무와 풀과 야생화로 다채로웠다. 나무와 풀과 야생화가 오롯한 개성을 하나씩 품고, 커다란 푸름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여백서원에 묻힌 사연을 꺼내었다. 하나도 허투루 들을 수 없을 만큼, 소중했다.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아, 넘쳐흘렀다. 사연 없이 멀뚱히 앉아 있는 것들이 없으니, 그녀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듯했다. 그녀에 의하자면 낭만주의의 상징인 푸른 꽃, 이 년에 한 번꼴로 꽃이 핀다는 물망초에도 각자의 세계가 있다. 이야기는 구석구석 시구를 새겨놓은 비석으로, 사과나무 다섯 그루로 경계 없이 넘나든다. 무릎 높이 크기의 사과나무 오형제를 지나자 정자 하나가 서 있었다. '시정(詩亭)'이다. 여백서원이 시작된 곳이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돈을 모아 여주에 글 쓸 공간 하나를 마련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서울에서 여주까지 달려갔다. 하지만 제 땅이 아니기에 언젠가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날로 커졌다. 때마침 건넛마을에 공간 하나가 있다 하여 앞뒤 사정 생각하지 않고 덜컥 땅을 샀다. 그곳에 지은 것이 바로 시정이다. 시정 아래로 지은 게 여백서원이다. 제자들을 위한 공간인지라, 보온에 신중을 더해 지었다. 황토벽돌 두 겹 사이에 숯가루와 보온재를 넣어 벽을 만들었다. 차경(借景)을 살려 큰 창도 냈다. 덕분에 어디에서나 바깥을 내다보아도 풍경이 창에 걸린다. 그녀가 쏟아놓는 이야기를 따라 가다 보니 의외의 장소, 철골 전망대에 다다랐다. 돈이 없어 '멋지게' 짓진 못했지만, 찾아오는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란다. 여백서원에서 가장

1.



profile

전영애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독문과 교수로 20년간 지내고, 올해 퇴임했다. 《괴테 시 전집》, 《괴테 서 · 동시집》 등 60여 권을 우리 말로 옮겼고, 《카프카, 나의 카프카》 등의 시집을 펴냈다. 경기도 여주에 여독서원을 짓고 운영 중이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서원을 개방하고 있다.



2.



3.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이자, 걸은리의 진풍경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곳에 자리잡은 시구 하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받은 유산, 얼마나 찬란하고 넓디넓은지 시간이 나의 소유, 나의 경작지는 시간"

찬란한 삶의 기록, 여백에 담다

그녀를 따라 그렇게 여백서원 안으로 들어섰다. 밖에서 안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이어진다. 그녀가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어김없이 보여준다는 귀한 것을 순서대로 내어오기 시작했다. 보자기로 주섬주섬 쌓아 놓은 것들을 풀어놓았다. 어머니의 책, 아버지의 책, 그리고 독일문학 관련한 희귀본들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큰 살림을 건사하느라 평생을 고생했다. 배움에 대한 욕망이 컸던 어머니는 소설, 조선시대 가사를 필사했다. 이를 적은 종이가 그녀의 손에 고스란히 남았다. 아버지는 킬리만자로에 오른 두 번째 고령 등정가 전우순 씨다. 그녀의 조부는 소수서원 · 도산서원 원장을 지낸 유학자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괴테의 글은 줄줄 읽으면서, 증조부의 글을 못 읽는 게 안타까워 조부의 문집을 직접 한국어로 번역했다.

1.
그녀가 보자기에 곱게 싸인 귀중한 것들을 꺼내왔다. 그녀의 아버지가 한문으로 된 증조부의 문집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들이다. 자그마치 1,000여 장이 넘는다.

2.
아버지의 호에서 따와 이름 지은 '여백서원', 나무와 풀로 둘러싸인 여백서원이 푸름으로 가득 차 있다.

3.
여백서원 곳곳에는 시구가 적힌 비석으로 가득하다.

종이 위에 붓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갔다. 그게 자그마치 1,000여 장이다. 첫 장은 이렇게 써 내려간다. '91세 우순이 울면서 피로 번역하고 쓰다'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는 그녀의 목소리는, 금세 울음이 터질 듯 애처로웠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해까지 에베르스트에 오르셨어요. 마지막 등반을 마치시고 돌아오셨을 때, 이미 담도암 2기셨어요. 2011년, 6시간 반에 걸쳐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일을 마무리하셨지요. 자신의 자서전은 물론, 증조부 문집을 번역하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쓰는 것만 해도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버지께서는 번역에 설명까지 달으셨어요. 이걸 정리를 다 하신 후 돌아가셨죠."

여백서원에는 존재 이유만으로 소중한 것들로 넘쳐난다. 그녀가 시의 스승으로 모시는 시인 라이너 쿤체의 책, 학문의 스승인 헨드릭 비루스 교수의 책, 자신이 쓰고 번역한 책, '독일 명작의 이해'를 수강한 제자들이 만든 책까지, 모두 다 소중하게 간직돼 있다. 그렇기에 이 공간은, 사람의 이야기를 보존하는 곳이라 말할 수 있다.

사유와 반추의 공간

여백서원에서 그녀는 제자들과 오마토(5월 마지막 토요일), 시마토(10월 마지막 토요일),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위한 월마토(매월 마지막 토요일) 모임을 가진다. 이곳은 학문도, 성과도 없이 오로지 '쉼'만이 직결되는 장소다. 그렇기에 전영애 교수는 여백서원이 누구든 쉬어갈 수 있는 푸근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

"이곳에 와서 쉬기도 하고 책도 봐요. 하지만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자는 거더라고요. 세상에는 이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과를 내어야만 목표에 다다를 수 있고, 성과를 통해 우리는 인정받아요. 인정받지 못한 자는 갈 곳이 없고, 쉴 곳이 없어요. 이곳에서는 그런 것들 모두 내려놓고 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인지 저는 고시에 합격했다고 찾아오는 제자도 예쁘지만, 고시에 떨어졌어요 하고 찾아오는 제자들은 더 예뻐요."

6월 15일,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로서 그녀의 마지막 강의가 있는 날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그녀를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녀도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다. 지금까지 그녀가 써내려 온 책에 대한 코멘트다.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글들을, 그녀는 이제야 내어놓는다고 했다. 이 강의를 끝으로, 전영애 교수는 여백서원 지기로서의 역할만을 해 나갈 예정이다.

전영애 교수의 운명, 여백서원의 사명은 다양한 이야기가 보다 많은 사람에게 사유와 반추의 계기를 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여백서원의 시간은 무한대이고 여백서원의 여백(餘白)은 사연 가진 모든 이들을 위해 남아 있다.

삼만큼

효능 만점

백선

백선은 흔히 봉삼, 봉황삼이라고도 부르지만
실상 산삼, 인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단지 뿌리가 봉황과 닮았을 뿐. 하지만 약효는 산삼과 인삼만큼 뛰어나다.
약초의 가치를 약효과로 평가한다면, 백선은 산삼과 인삼의 가치를 능가한다.

감수. 전권석 박사(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꽃도 예쁘고 모양도 예쁘네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한다. 습지가 많은 양지 또는 반그늘에서 잘 자란다. 높이 60~90㎝ 정도로 곧게 자라고, 줄기 윗부분은 털로 덮여 있다. 잎은 깃털 형태에 서로 어긋나게 자리하고 있으며, 좁은 간격으로 모여 있다. 꽃잎에는 보라색 줄무늬가 나 있다. 잎 가장자리 톱니에는 선점이 있는데, 이곳에서 독특한 향이 난다.
야생화 중에서도 꽃이 무척 아름다워, 관상용으로도 좋다. 그래서 화단이나 화분에 심어도 좋다. 키가 큰 식물이라 물을 좋아하는 습성을 갖는다. 물이 부족하면 잎이 아래로 축 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때 물을 하루에 한 번 흡족히 준다.
백선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흰색으로 선명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백양, 백양선, 지양선이라고도 부른다. 또, 백선의 뿌리는 전설 속의 새인 '봉황'이 날개를 편 모습과 닮았다하여 '봉삼(鳳蔘)'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것이 마치 모든 병에 효과가 좋은 것처럼 전해져 인삼, 산삼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단지 뿌리가 봉황을 닮은 것일 뿐이니 혼동해서는 안 된다.
봉삼은 그 효능이 무척 다양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효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했다. 그야말로 만병통치약. 산에는 특히 '삼' 종류가 많다. 산에 자생하는 식물 중 '삼'자가 붙은 식물은, 산삼만큼 약효가 뛰어나다. 백선의 봉삼을 비롯하여, 산삼, 연삼, 너삼, 만삼, 현삼 등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하다. 그 중에 가장 으뜸은 봉삼이다. 봉삼은 피를 맑게 하고, 암을 정복한다는 기적의 물질 '게르마늄'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산삼처럼 원기 회복에 좋고 정신을 맑게 한다. 체내 염증도 없애준다고 하니, 약효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효능이 최고일세

백선의 뿌리를 약으로 먹는다. 특히 뿌리껍질을 '백선피(白鮮皮)'라 부른다. 뿌리는 물에 씻은 뒤 껍질을 벗긴다. 수염뿌리와 조피를 제거하고 세로로 가른 후, 중심부의 목질부를 빼내 햇볕에 말려 사용한다. 청열(淸熱), 해독(解毒), 해열(解熱), 거풍(祛風), 조습(燥濕)에 효능이 있으며 알레르기성 비염, 기침, 천식, 간염 등에도 효과가 있다.
뿌리껍질은 여러 가지 병원성 진균을 억제하고 살충 작용을 한다. 독기를 풀어주는 작용도 있다. 뿌리껍질을 달여서 팔다리의 운동이 불안한 증세, 중풍 치료, 월경 전이나 해산 전에 누르스름한 액체가 조금씩 흐르는 증세(이슬), 대장염, 간헐적으로 열이 오르는 증세, 두통, 류머티즘, 뇌막염, 월경 장애, 황달에 약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 했다. 과다하게 섭취하면 간수치가 상승할 수 있다. 간염, 간경화, 지방간, 중풍을 앓는 경우 차처럼 소량으로 마시는 것이 좋다.



How to eat
어떻게 먹을까



달여 먹는다
1회에 뿌리껍질 2~5g을 200cc 물에 달인다. 차처럼 하루 3~4잔을 꾸준하게 마신다.



환을 지어먹는다
백선 뿌리에 든 심을 빼고 바싹 말린다. 말린 뿌리를 빻아 가루로 만든다. 가루와 찹쌀가루를 섞어 반죽한다. 칼국수를 밀 듯 밀대로 밀어 얇게 펴준다. 동글동글하게 환을 만든다.



술을 만든다
뿌리를 깨끗이 닦아 물기를 제거한다. 약 6개월 이상 숙성한다. 잠자기 전 2~3잔 정도 마신다.



생으로 먹는다
뿌리의 심을 제거한 후, 5㎝ 이하의 크기로 하루 2~3회 씹어 먹는다.

어떤 날 숲

한 걸음 더

가까이

인천 송도 미추홀공원

빽빽하게 들어선 회색 건물,
숨 돌릴 틈 없는 도시의 바쁨.
도시인들을 위한 단 하나의 처방전, 자연 속으로

일상으로의 탈출

하늘, 나무, 호수. 편안히 몸을 누일 수 있는 정자. 도심에서 찾기 어려운 풍경이 머릿속에 끊임없이 맴돌 때가 있다. 가끔은 자연으로 향하고 싶지만, 자동차만 쌩쌩 달리는 도심에서는 도무지 찾기 힘든 풍경. 실망할 필요가 없다. 조금만 뒤돌아보면 도심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손짓하는 자연이 숨 쉬고 있다. 도시숲이다. 도시숲은 일상에 지친 도시인을 위로해 주는 가장 큰 묘약이다.

도심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자연을 벗 삼아 조용한 휴식을 누리고자, 문지혜 씨 가족이 송도 미추홀공원을 찾았다. 문지혜 씨와 남편 최윤석 씨 그리고 그들의 아들 정우까지 함께 걷기 딱 좋은 날이었다.

평소에도 문지혜 씨 가족은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이다. 임신 막달에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니, 여행을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인지 알만도 하다. 멀리 가지 못할 때는 살고 있는 인천 주변으로 나들이를 가는 편인데, 미추홀공원은 가족이 자주 산책을 나오는 장소란다.

"여행을 많이 좋아해 정우를 임신한 후 안정기가 지나자마자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쉬지 않고 여행을 다녔어요. '아이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많이 다니느냐면서 친정엄마한테 핀잔도 들었지만, 여행은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특히 자연을 만나는 일은 무척 행복한 일이에요. 미추홀공원은 평소에도 자주 산책을 나오는 곳이에요. 다양한 나무, 푸른 잔디, 거기에 아름다운 한옥까지. 미추홀공원에 와 있으면 도시에 있다는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만큼 쉬어가기 딱 좋은 장소이죠."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두 사람이 만났다. 타지에서 늦깎이 대학원생으로 만난 두 사람. 심지어 연고도 없는 대전에서 지낸 터라, 둘은 마음 둘 곳도 없었단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으니 외로움의 크기도 엄청났다. 이런 상황에서 둘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깨를 토닥이며 서로를 격려했고, 항상 곁에 있다는 믿음을 심어줬다. 그렇게 둘은 연인으로 부부로 서로의 사랑을 싹 틔웠다. 사랑은 아들 정우로 꽃 피었고, 그렇게 가족이 된 이들은 가장 아름다운 꽃밭이 되었다.

도시인을 위한 푸른 쉼터

예부터 인천은 항구 도시로서 주요 역할을 해 왔다. 인천의 송도는 계획도시로,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자본으로 만들어진 경제자유구역이다. 탄생 배경도 독특하다. 인천 연수구 해안에 여의도 12배에 해당하는 간척지를 매립해 만들었다.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송도 곳곳에는 다국적 기업, 지식 기반 산업 단지, 컨벤션 센터, 전시장 등 다양한 국제비지니스 센터가 조성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송도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이 '참으로 이국적이고 낯설다'이다. 송도에 들어서서 높은 건물을 보고 있노라면, '이곳이 한국이 맞나?' 의심될 정도다. 이국적인 건물과 함께 송도에는 녹지 공간도 많다. 센트럴파크, 해돋이공원, 미추홀공원이 바로 그곳. 특히 미추홀공원은 그 경관이 무척 아름다워 산림청으로부터 녹색도시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처음 조성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에, 다양한 수종의 식물을 심고 가꾼 덕분일 것이다.

미추홀공원에 들어서자 바깥 도시와는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바쁜 도시와 달리, 무척 한갓진 모습이다. 지친 도시인을 달래주듯 평온하기만 하다. 미추홀공원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정갈하다'였다. 그도 그럴 것이, 미추홀공원을 이루는 건물은 모두 전통 한옥이다. 시골 마을에서나 볼법한 정자도 몇 채 있다. 이내 한옥 너머에 높이 솟은 건물이 눈에 띈다. '이곳은 인천이다'를 알려주듯.

가족을 제일 먼저 반긴 건 소 등에 올라타 피리를 부는 사내 조형물이다. 처음 보는 조형물에 정우는 눈이 휘둥그레진다. 금세 손은 사내를 향해 뻗어 있다. 궁금한 표정이 가득한 정우에게, 엄마와 아빠는 동심을 가득 담아





2. 3.

설명해 준다. "형이 소 등에 타고 있네. 옛날에는 지금처럼 '빠방'을 타고 다닌 게 아니라, 소를 타고 다녔대."

넓게 조성된 도시숲에는 나무로 푸름이 가득하다. 갈래갈래 산책길은 여전히 흙길로 남아 있어, 자연에 있는 느낌을 흠뻑 자아낸다. 곳곳에 정자도 많아 햇볕도 피하고, 친구와 연인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기에도 제격이다. 공간 중심으로 들어가자 독특한 조각상이 일렬로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넓은 잔디밭 양옆에 세워진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이다. 익살스러운 표정 덕분에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다.

미추홀 공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전통문화 체험장이다. 도시 공간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나무 그네가 우두커니 서 있다. 그 외에도 널뛰기 등의 문화 체험 공간이 자리하니, 독특하다 못해 신기하기까지 하다. 도시숲을 찾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잔디밭에 잠시 쉬어 가는 데도 엄마와 아빠는 정우에게 다정한 이야기를 아끼지 않는다. 이곳의 푸른 나무처럼 푸르게 자라줄 정우, 그리고 정우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엄마와 아빠. 일상의 바쁨을 잠시 내려놓은 부부에게 아이와 함께 쌓은 추억이 하나 더 늘었다.

"미추홀공원에 들어가자 시원한 바람이 더운 마음을 씻겨 내려주었습니다. 클로버로 가득한 잔디, 새소리 가득한 나무숲에서 아이와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매번 사진은 뒤로하고 구경하기에 바빴는데, 소중한 추억을 앨범에 담게 되어 행복해요. '숲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더욱 가까이 살피고 챙기고 싶은 마음, 더 든든하고 강한 울타리가 되고 싶은 마음. 모든 부모의 마음일 터. 부모의 마음이 아이에게 닿아, 아이는 자신의 푸른 꿈에 강과 산을 더할 것이다. 그렇게 부모와 아이는 한 걸음 더 서로에게 다가간다.

1.
미추홀공원에 들어서자 바깥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펼쳐졌다. 한옥, 호수, 나무까지…. 오로지 '쉼'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했다.

2.
잔디밭에서 잠시 쉬어 가는 데도 엄마와 아빠는 아이에게 다정한 이야기를 아끼지 않았다.

3.
미추홀공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꼽히는 인화루. 인화루는 경복궁의 경회루를 본떠 만들었다.

인천 송도 미추홀공원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9-1
- 문의 : 032-453-7114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어떤 날 숲'과 함께 숲으로 떠날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숲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독자 분은 독자 엽서, 이메일을 통해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아삭아삭 식감을 살린

그린 테이블

눈개승마 · 죽순

임산물을 데치고 갖은 양념을 더해 조물조물 무쳐먹는 일은 이제 그만!
한 번쯤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알싸한 눈개승마의 쓴맛, 아삭아삭한 죽순의 식감을 살려 만드는 요리!
임산물의 또 다른 매력이 다가온다.

요리 & 스타일링. 김보선 어시스트. 박재원



Tip.
캔 죽순을 쓰는 경우 반 갈랐을 때 틈 사이에 낀 하얀 석회질을 제거하도록 한다. 젓가락으로 긁어내 맑은 물에 헹구면 된다.

눈개승마 버섯 파스타

재료
눈개승마 15포기, 표고버섯 3개, 마늘 10톨, 스파게티 150g, 면수(스파게티 삶은 물) ½컵, 국간장 1+½큰술, 올리브오일 적당량, 소금, 후추 약간씩

만들기
1. 눈개승마는 끓는 물에 데쳤다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꼭 짠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2. 표고버섯은 슬라이스 한 다음, 눈개승마와 함께 국간장을 넣고 무친다. 마늘은 슬라이스 한다.
3. 스파게티는 소금을 넣은 물에 알덴테(중간정도로 설익힌 것) 상태로 삶고, 면수는 버리지 않는다.
4. 달군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마늘을 넣어 향을 내어 볶는다. 여기에 눈개승마와 버섯을 넣고 소금과 후추를 뿌려가며 볶는다.
5. **4.**에 면수를 붓고 끓으면 삶은 스파게티를 넣고 함께 볶는다. 마지막으로 소금, 후추 간을 한 뒤, 불을 끄고 그릇에 담아 완성한다.

Tip.
눈개승마와 버섯에 간장을 넣어 밑간을 하면 짭짤한 맛이 배어 감칠맛이 더 강해진다. 때문에 스파게티 면과 함께 먹었을 때 간이 더 잘 맞는다.

죽순 돼지고기 겨자 마요네즈 볶음

재료
죽순 200g, 돼지고기 앞다릿살 250g, 브로콜리 ¼개, 다진 마늘, 청주 1큰술씩, 소금, 후추, 포도씨유 약간씩
겨자 마요 소스 – 마요네즈 3+½큰술, 간장 1큰술, 연겨자 ⅔~1작은술

만들기
1. 죽순은 한입 크기로 썬다. 돼지고기 앞다릿살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다음, 다진 마늘과 청주, 소금, 후추를 넣고 버무려 밑간한다.
2. 브로콜리는 한입 크기로 손질해 끓는 물에 데쳤다 찬물에 헹궈 건진다.
3. 달군 팬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죽순과 돼지고기, 브로콜리를 넣어볶는다.
4. 고기가 노릇하게 익으면 분량의 재료로 섞어 만든 겨자 마요소스를 넣고 재빨리 버무려 섞어 완성한다.





1.
자연에서 놀며 아이들은 자연스레 자연의 소중함을 배운다.

2.
북단에 위치한 곳이자, 군사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연천 한동안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어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편이다. 마을을 감싼 고대산은 보는 것만으로도 풍요롭다.

1.



2.

숲에서 자라는 가치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연학교

연천 고대산 산촌생태마을

경원선의 마지막 역인 '신탄리역'. 그곳에 너른 고대산을 품에 안고 자리한 산촌생태마을이 있다.
낮은 지붕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집 담장마다는 주인을 닮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곳.
이곳에 아이들에게 자연의 풍요와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공간이 있다.
고대산라이프가 바로 그곳. 이곳을 지키는 이들은 김린 사무장과 이미나 운영매니저이다.
가볍게 내려왔다가 이곳의 매력에 푹 빠진 마을지기들이다.
아침마다 마시는 공기가 '참으로 맛있다'는 그들은, 도시의 아이들에게 시골의 풍요로움을 가르친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생은 '자연'임을 알기 때문이다.

산 좋고 물 좋은 연천

연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단에 있는 곳이자, 군사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30년 전만 해도 이곳은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다. 오랜 기간 사람 출입이 통제되었으니 그만큼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다.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하지만 강원도와 더 가깝고, 연천 시내보다 강원도 철원과 더 가까운 곳, 그곳이 바로 연천이다.
연천 시내인 전곡만 지나도 웬만해서는 2층 이상 되는 건물도 없다. 건물을 둘러싼 산이 이곳이 바로 '첩첩산중이구나'를 느끼게 해줄 뿐이다. 고대산 산촌생태마을이 자리한 신탄리에 도착하자 이내 상쾌한 풀 내음이 솔솔 몰려왔다. 도시 사람들은 감히 알 수 없다는 산촌마을의 삶이 이곳에서 펼쳐진다.

그저 작은 산촌마을이었던 이곳이, 도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데는 인천산림조합의 도움이 컸다. 산촌마을법인이 인천산림조합과 MOU를 맺게 된 것. 마을은 인천산림조합의 도움을 받아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때 김린 사무장과 이미나 운영매니저는 문화 강사로 연천에 처음 와 봤다고 했다.
"문화 강사로 처음 이곳에 왔어요. 인천에서 연천으로 출퇴근을 했는데, 이곳 마을이 무척 마음에 들었죠.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1년간 인천과 연천을 오가며 이 공간을 꾸몄어요. 사비를 훌훌 털어가며 공간 구석구석을 꾸몄죠.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을 테마로 방을 꾸미고, 아이들이 숲을 느낄 수 있도록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에 일일이 나무 모형도 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게 이곳에 푹 눌러앉게 된 계기가 되었죠."

처음엔 그저 문화 강사로 이곳에 왔다고 했다. 문화 강사로 일하면서 아이들과 노는 게 즐거웠고, 이곳 연천이 마음에 들었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김린 사무장이 조심스레 고백을 해왔다. "그때 만나 운영매니저와 부부가 되었어요" 부부가 된 둘은 고대산 산촌생태마을에 머무르며,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사비를 털어 손수 방과 공간을 꾸몄다. 아이들이 노는 공간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숲처럼 꾸며놓았다. 스티로폼을 하나하나 잘라 나뭇잎과 꽃을 만들었다. 공간 구석구석에는 그들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었다.

복합 에듀테이션(Eduatation)

풍요로운 자연이 함께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도 다양하다. 고대산 산촌생태마을은 프로그램을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간에는 아이들이 자연에서 놀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득하다. 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미션하GO 사진찍GO'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한 팀을 이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주어진 미션에 맞게 마을에 나가 사진을 찍어오는 거죠. 여름에는 근처 개울에 나가요. 수생식물이 많이 살고 있어 루페를 이용해 관찰하기도 해요. 자연물을 이용해 곤충이나 소원나무를 만들기도 해요. 근처에 고대산이 있으니 쉬운 등산로를 함께 오르기도 합니다. 숲해설가 자격증을 갖고 있어 아이들에게 숲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알리고 있죠."

김린 사무장은 도시 아이들이 '흙'을 만지는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시에서 온 아이들 대부분이 흙은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면 아이들과 '아궁이 마니또'를 해요. 작은 아궁이에 같이 불을 피우고 고구마, 감자를 구워요. 누가 먹을진 모르지만,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며 굽는 거죠. 저녁이 되면 앞마당에 나가 하늘의 별을 관찰해요. 돗자리를 깔고 누워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별들이 쏟아지거든요. 그만큼 이곳이 깨끗하다는 증거죠."

자연은 가장 위대한 스승

다른 산촌생태마을을 이끄는 운영자에 비하면, 김린 사무장과 이미나 운영매니저의 연령은 낮은 편에 속한다. 덕분에 정보에 빠르고 유행에 민감하다. 무엇이 아이들에게 좋을지도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도 빠삭하게 알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산촌생태마을에 비하면 경쟁력이 좋은 편이다. 그들은 산촌생태마을의 운영자가 '사명감'을 갖고 일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애착이 곧,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김린 사무장과 이미나 운영매니저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들이다. 다양한 공모 사업에도 부지런히



3.



4.



5.



3.
도시의 아이들은 흙을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이곳 산촌마을에 와 자연스레 흙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게 된다.

4.
경원선의 마지막인 신탄리역. 신탄리역이 있는 그곳에 고대산 산촌생태마을이 자리한다.

5.
아이들에게 자연은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 옹기종기 모여 아이들은 함께 협동심을 발휘하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운다.

6.
프로그램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눈다. 주간에는 아이들이 숲으로 나가 자연을 직접 만난다.



6.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박람회에도 참석하고 있다. 부지런히 움직인 덕분에, 작년에는 산림청 녹색자금으로부터 사업비를 일부 지원받았다. 녹색자금은 산림체험 활동 시설의 설치와 운영, 교육 홍보를 돕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산림청 녹색자금에 선정되었어요. 산촌생태마을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죠. 녹색자금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 주관한 산촌마을활성화 공모사업에도 참여했었죠. 처음 이곳을 시작할 때는 잘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산촌마을과 캠핑을 합성해 '산촌핑'이라 이름 지어 공모 사업에 제출했어요. 거기에 자연물로 교구 만들기, 칡으로 리스 만들기 등을 추가해 제출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도 거머쥐었죠."

올해는 고대산 산촌생태마을과 인천산림조합의 MOU가 끝나는 해이다. 그래서 김린 사무장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단다. 덕분에 고민도 두 배로 늘었다. 이곳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 프로그램도 더욱 다양하게 만들고 싶은 바람도 있다. 그래서 김린 사무장은 직접 목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목공 교육도 받고 있다. 또한, 관광두레로부터 휴양마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이곳을 더욱 알차게 가꿔 나갈 계획이다.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두꺼운 점퍼를 두 개나 입으며 겨울을 난다고 했다. 어느 해에는 몇 달 동안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한 적도 있단다. 그럼에도 이곳에 남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답변은 소박했다. 자신의 아이가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단다.

부부는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다고 했다.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일 계획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박람회에 참여해 정보도 얻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 아이디어도 얻겠다고 했다. 아마 그들이 있는 한, 아이들의 아름다운 꿈은 이곳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것이다.

연천 고대산라이프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고대산길 70
- 문의 : 031-834-0019
- 홈페이지 : http://www.lifego.co.kr

산촌생태마을 체험



1.
미션하GO 사진찍GO
각 팀에게는 미션이 주어진다. 근처 산촌마을로 달려 나가 주변에는 어떤 식당이 있는지, 담벼락에는 어떤 그림이 있는지 사진으로 담아오는 것! 찍은 사진은 다함께 모여 공유한다.



2.
숲토리(숲+Story)
자연과 직접 마주하는 시간! 아이들은 한반도 모양의 공원에서 뛰어 놀며, 나무와 곤충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3.
나무로 놀자
자연 부산물을 이용해 소원 나무를 만드는 프로그램. 아이들은 직접 주어온 자연의 부산물을 활용해 나무를 만든다. 거기에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슬며시 적어놓는다.

캠핑

두 바퀴로 만끽하는

캠핑의 즐거움

자전거 캠핑

이제는 캠핑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야 할 때!
최소한의 짐만 꾸리고 자전거 캠핑을 떠나 보자.
당신의 캠핑이 더욱 자유로워진다.

글. 김문기(자전거 캠퍼)

나의 자전거 캠핑 입문기

캠핑을 다니기 시작한 건, 2007년 여름이었다. 그때는 오토캠핑을 즐겼다. 캠핑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오토캠핑에 이어 미니멀 캠핑, 백패킹으로 캠핑을 즐겼다. 지금은 자전거 캠핑에 정착했다. 과거 자전거로 장거리 여행을 해본 경험 덕분이다. 또, 캠핑이 뭔지도 모를 때부터 열악한 장비를 꾸려 전국 일주를 떠난 경험도 있다. 자전거 여행, 그리고 뜨문뜨문 경험한 캠핑 덕분에 나는 자전거 캠핑에 쉽사리 입문할 수 있었다.

자전거 캠핑을 시작한 데는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그저 진정한 여행의 묘미를 느끼고 싶었을 뿐. 캠핑장에 도착해 텐트를 설치하고, 해먹에 누워 낮잠을 청하고, 저녁에는 술 마시며 떠드는 캠핑. 무의미했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캠핑 진정한 여행의 묘미라 생각했다.

자전거 캠핑의 가장 큰 묘미는 주변 풍경을 천천히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멈춰 주변 맛집에 들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생기는 일련의 과정 모든 게, 매력적이고 흥미롭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즐겨야 할까?



1. ——— 자전거부터 꼼꼼하게

자전거가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을 알아보자. 일반 도로는 물론, 언덕, 비포장도로에서도 잘 달려야 한다. 또, 캠핑 용품을 싣고 달려야 하니 차체가 가볍고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캠핑용 자전거로는 생활형 하이브리드 자전거, 접이식 미니벨로(바퀴 지름 20인치 이하 자전거)가 좋다. 하이브리드 자전거는 기어를 잘 갖춰 언덕길을 쉽게 오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접이식 미니벨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무척 용이하다.

내가 사용하는 자전거는 일명 '브롬핑(Brompton+Camping)'이라 부르는 자전거다. '브롬톤'이라는 자전거와 '캠핑'을 합성한 단어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새로운 형태의 캠핑 장르다. 즉, 브롬핑은 '접이식 자전거'를 타고 캠핑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면 된다. 자전거 캠핑을 하다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럴 때 휴대가 무척 용이하다.

미니벨로와 비슷한, 접이식 자전거인 '폴딩(folding) 바이크'가 있다. 자전거 캠핑에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 접기가 번거롭고, 접고 나서도 크기 자체도 큰 편이다. 바로 여기에 브롬톤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다. 접었을 때 크기가 가장 작게 접히는 자전거이고, 빠르다는 장점까지 있다. 또 예쁘기까지 하다. 자동차 트렁크, 뒷좌석에도 어려움 없이 적재할 수 있다.



2. ——— 어디로 떠나지?

자전거 캠핑을 시작하면서 조금 달라진 게 있다. '어떤 캠핑장을 갈 것인가'보다, '어느 길이 아름다울까'를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됐다. 또, 얼마나 '안전한가'도 중요하다. 대중교통도 빼놓을 수가 없다. 만약 직장인이 캠핑을 즐기려 한다면? 아마 주말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가장 짧게 1박 2일 동안만 자전거 캠핑을 즐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버스, 기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한 후 자전거를 타고 캠핑지까지 이동하는 게 좋다.

만약 초보 캠퍼라면, 당일치기를 먼저 시도하라. 이후 점차 거리를 늘려가며 자전거 캠핑에 적응해 나가자. 무리하게 장시간 달리다 보면, 캠핑을 즐기기도 전에 지칠 수가 있다. 처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적당한 지점까지 이동하자.

서울은 자전거 길이 잘 조성되어 있는 편이다. 한강, 남한강, 북한강의 자전거 길을 달려 캠핑장까지 이동해 보자. 다른 지역에서는 4대강을 중심으로 조성된 자전거 길이 있다. 이 길을 이용해 주변 캠핑장까지 이동하는 것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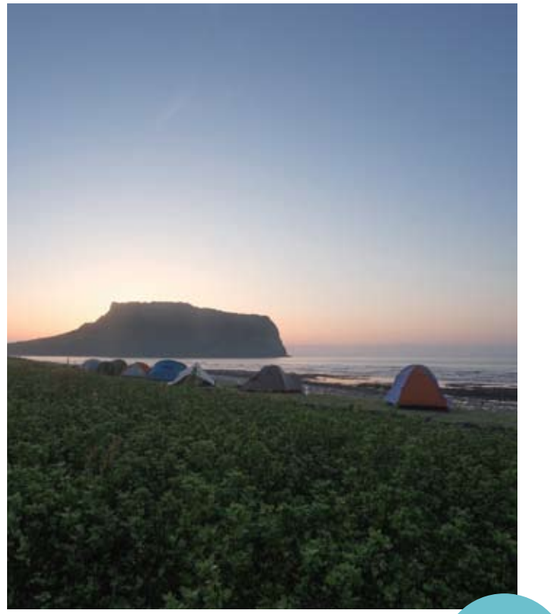
캠핑의 묘미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다. 막상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면 비포장도로, 일반 도로를 달려야 할 때가 있다. 자전거 캠핑은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니, 도로 폭이 좁은 일반도로, 화물트럭이 많이 다니는 코스는 되도록 피하자. 나는 코스를 짤 때 자전거 도로의 비율이 높은 코스로 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 짐, 어떡하지?

자전거 캠핑의 핵심은 '간소화'다. 짐을 싣고 달려야 하니, 모든 장비가 작고 가벼워야 한다. 자전거로 이동 가능한 짐의 무게는 약 '15kg' 내외다. 최근에는 자전거 핸들 바에 거치할 수 있는 초경량 텐트가 출시되고 있으니, 참고!

기본적인 짐은 텐트, 침낭, 매트리스, 랜턴만 있어도 Good! 한 두 끼 정도는 직접 만들어 먹고 싶다면, 버너, 연료, 쿠커 세트를 챙기는 것도 좋다. 자전거 캠핑을 즐기고 싶다면, 바비큐는 과감히 포기하자. 간단하면서도 열량 높은 식단을 챙기시라. 요리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전거를 타고 즐길 수 있는 풍경도 줄어든다.

안전 장비도 꼼꼼하게 챙기자. 아무래도 도로를 달리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그만큼 안전 장비는 중요하다. 헬멧, 고글은 가장 기본으로 챙겨야 한다. 야간이나 흐린 날씨를 대비해 전조등, 후미등도 꼭 달아주자. 만약을 대비해 휴대용 펌프, 펑크 수리키트도 준비하자.



4. ——— 매너 있는 자전거 캠퍼가 되자

자전거 캠핑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때 차선을 준수하자. 전방 주시 같은 안전사항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항. 특히 2인 이상 단체 주행 시 선두와는 간격을 유지하고, 행렬이 길 경우 조를 나누어 순차적으로 출발하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센스 있는 캠퍼가 되자!





Bicycles Camping

Tip. 우리강 이용 도우미

www.riverguide.go.kr

4대강을 중심으로 조성된 자전거 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다. 이용자 위주의 콘텐츠로 가득하다. 강의 위치뿐만 아니라, 강 중심에 있는 관광지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어디를 가야할지 도저히 계획이 세워지지 않을 때, 꼭 참고해보자. 다른 여행객들의 후기도 읽어볼 수 있다.



산으로 들로

생명이 가득한 계절

<3화>산촌에서 임업인으로 살아가기

나무와 꽃은 제 삶의 원동력입니다. 저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저를 풍요롭게 하기도 하죠. 산촌에 살며 나무와 야생화를 가꾸고 있습니다. 묘목을 키워 전국 각지로 입양을 보내기도 하죠. 또, 재배한 꽃으로 꽃차를 만들어 마시기도 해요. 나무와 꽃 덕분에 산촌에서의 삶이 더욱 풍요롭습니다.

글. 이용길

나무야 사랑해

나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아마 산촌일기 첫 회 때 이야기해서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사는 세종시 전의면은 '나무마을'로 무척 유명한 곳입니다. 한때는 전국의 조경수 묘목 40%를 공급하기도 했던 지역이죠. 이곳 지역은 일교차가 커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라요. 출하 시기에는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바쁩니다. 이 시기에는 공주나 조치원에 사시는 아주머니를 모셔옵니다. 나무를 쉽게 뽑고 털기 위해 트랙터를 사용해요. 아주머니들은 묘목을 20주씩 모아 한 다발로 만듭니다. 이렇게 작업한 묘목이 어디로 가냐고요? 나무 시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로 갑니다. 그래서 전 우리 마을이 '전국을 아름답게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 목인동도 있죠.

목인동은 소나무, 라일락, 주목, 이팝, 산수유 등 각종 조경수를 재배합니다. 재배한 묘목이 제 곁을 떠날 때, 저는 "시집 보낸다"고 표현해요. 내 자식이 결혼하는 것만큼 기쁘기도, 섭섭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묘목을 기르다 보면 즐거운 일이 하나 더 생긴답니다. 나무가 제법 잘 자라주면, 목인동이 더불어 아름다워지거든요.

소나무를 출하하기 전에는 시청에서 소나무 반출증을 받아야 합니다. 소나무가 튼튼한지 아닌지 검사하는 거예요. 시청 산림과에서 재선충, 솔잎혹파리 피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줍니다. 반출증을 받으면 출하 허가가 떨어져요. 이때부터 작업은 시작되는데, 그 작업이 무척 고됩니다. 끈, 마대, 여러 장비 등을 준비한 후 일을 시작합니다. 키가 3m, 굵기는 6점(나무의 굵기 1cm=1점) 정도 되는

산촌일기
세종시 전의면은 나무마을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이용길 씨도 나무를 기르며 살고 있죠. 이번 호에는 아름다운 산촌에 살며, 꽃과 나무를 가꾸는 이용길 씨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1.

소나무를 굴취하려면, 한 사람 당 하루 작업량은 대략 30그루 정도가 됩니다. 장비 사용법도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저는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장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소형 굴착기 교육을 받았죠. 삽으로는 도저히 일할 수가 없어서, 조그마한 굴착기라도 사용해야 했거든요. 덕분에 유용한 교육을 받아 굴착기도 제법 몰 줄 알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종자기능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분이 세종시 전의면 사무소에 직접 찾아오셔서, 종자기능사를 강의해 주셨어요. 덕분에 시험은 합격했습니다. 조경수를 재배하는 저로서는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저 '감'과 '귀동냥'으로 꽃과 나무를 길렀었는데, 보다 전문적으로 재배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산촌에 살다 보면, 많은 기관에서 도움을 주시곤 합니다. 임업진흥원 박사님이 전의면에 직접 오셔서 조경수 생산, 유통, 발전에 대해 교육해준 적도 있습니다. 조경수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참석했어요. 덕분에 다양한 지식을 습득했죠. 농한기에도 열심히

2. 3.





[이용길]

20여 년의 도시 생활을 접고 2004년부터 산촌 생활을 시작했다. '땅을 사랑하고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를 모토로,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농가를 바라보니, 산촌의 미래가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교육 기관이 산촌에 도움을 주시면, 농가가 도움을 많이 받을 듯 싶어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생기길, 바라봅니다.

맑은 공기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기

산촌에서는 매일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동녘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산에 오르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재잘재잘 거리는 새소리도 들을 수 있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풍경도 가슴에 담을 수 있습니다. 절로 축복받은 삶입니다.

목인동에는 다양한 꽃이 자랍니다. 나무도 그렇지만 꽃도 일교차가 큰 날씨 덕에 잘 자라줍니다. 색상이 예쁘고 향기도 무척 좋아요. 저는 주로 구절초, 페퍼민트, 맨드라미를 심었습니다. 어느 날 흐드러지게 핀 구절초가 아까워, 구절초 꽃차를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구절초 몇 개를 띄우면, 향은 물론 맛도 좋더라고요.

해마다 구절초를 심었지만, 올해에는 밭을 더 많이 비워 더 많은 구절초를 심었습니다. 원래 묘목을 심었던 밭이었어요. 몇 년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더니,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지 뭐에요. 밭을 밤낮으로 일구어 구절초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잡목 사이로 자라던 산수유, 이팝나무, 라일락은 다른 곳에 이식했어요. 옮기는 데 꽤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래 밭에는 눈개승마, 곤드레, 어수리 등 여러 종류의 산야초도 심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올해 정말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경남 사천에 소재한 티백 제조회사와 위탁 가공협약을 맺었습니다. 가을에 꽃차 수요가 아주 많을 듯싶어요. 목인동 구석구석에 필 구절초를 미리 그려봅니다. 하나 더 좋은 일을 예상해 봅니다. 아내가 몇 달 전 식품가공기능사 시험을 보았어요. 6월 중에 발표될 예정인데, 합격을 확신합니다. 아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이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싶어요. 목인동에 와서 산야초도 채취하고, 장아찌 담는 방법도 배워가길 하는 바람입니다.

나만의 정원 만들기, 국가에서 인증 받다

해마다 많은 꽃을 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인동은 꽃이 사계절 내내 피는 곳이 되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 수선화, 매발톱, 금낭화, 붓꽃, 화초양귀비 여름에는 백합, 벌개미취, 장미 가을에는 구절초, 맨드라미로 가득해요. 목인동을 방문하는 분들이, 꽃을 보며 힐링하고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목인동을 방문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이곳에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나만의 정원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수련활동진흥원에서 '나만의 정원 만들기' 프로그램을 인증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연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고, 미래의 꿈을 펼치길 소망해 봅니다.

해마다 여름 장마철이 되면 두꺼비를 만났습니다. 어릴 적 보았던 커다란 개구리와 청개구리도 만나기도 해요. 올해는 조금 더 일찍, 5월 초에 두꺼비를 만났습니다. "아직은 우리 산촌이 깨끗하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목인동도 깨끗한 자연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예쁘게 가꿔 보겠습니다.

1.
목인동에는 다양한 꽃이 자란답니다. 아내와 함께 산야초도 많이 심었습니다. 덕분에 삶이 무척 풍요로워졌죠.

2.
소나무를 출하할 때 모습입니다. 멀리서까지 일을 도와주러 오셨어요.

3.
목인동이 얼마 전, 나만의 정원 만들기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인정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목인동에서 보다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행복한 아트테라피



● 대나무

안녕하세요. 대나무에요.
아침과 저녁, 찬바람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더운 바람이 슬슬 불어오기 시작하네요.
더위의 초입이 본격적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제가 생각나지 않으시던가요?
사계절 내내 푸르니 언제든 저를 만나러 오셔도 좋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저를 만나기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울울창창한 대나무 숲에 들어서면, 폭푹 내리 쬐는 더위도 무색해지죠.
이뿐인가요. 대나무에 바람이 스치면, 대나무는 훌륭한 악기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죠.
지금만큼, 대나무의 아름다운 빛을 담을 수 있는 계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파란 하늘만큼 푸른 대나무의 잎을 예쁘게 색칠해주세요.
지친 심신이 푸름으로 가득 차오를 거예요.

과명 벼과 **학명** *Phyllostachys Bambusoides* Siebold & Zucc.
분포지 남부 지방, 중부 해안가 **개화기**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개화, 녹황색
용도 각종 세공품, 가구재, 식용, 약용



색연필, 마커, 펜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개성있는 나만의 대나무를 보여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2016년 3+4월호 독자 의견

산림청 〈MAGAZINE 숲〉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MAGAZINE 숲〉을 읽고 난 후 인상 깊었던 기사에 독자 엽서, 이메일(magazinesup@korea.kr)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매 호 여섯분의 독자 의견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원동역, 통도사를 꼭 한 번 방문하고 싶게 만드는 기사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도 알차고 좋았어요. 통도사 인근 도시에 사는데, 한 번 정도 꼭 다녀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는 길 정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실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병길_대구



매실나무에 대한 정보가 가득해서 무척 유익했습니다. 특히 평소에 잘 몰랐던 살구나무와 매실나무의 차이에 대해 알 수 있었네요. 인포그래픽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매실나무의 정보를 가득 담아서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박재철_전주



쑥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약초입니다. 하지만 정보는 많이 알지 못했어요. 이번 기사를 통해 쑥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약용은 물론 특징까지, 쑥에 대한 정보를 많이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용길_경기 용인



부모님을 모시고 천리포 수목원을 다녀온 바로 다음날, 〈매거진 숲〉을 받아 보았습니다. 천리포 수목원 기사가 '운명'처럼 실렸더군요! 민병갈 원장님의 노력으로 좋은 수목원이 조성되어서 일반 시민으로서 무척 행복합니다.
민선희_경기 용인



사실 캠핑이라 하면, 단순히 야외에서 바비큐를 구워 먹으며, 맑은 공기와 함께 휴식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번 기사를 통해 캠핑이야 말로 숲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조향원_경기 의정부



귀산한 이용길 씨 이야기가 제 가슴을 짠하게 울리네요. 도시에 살지만, 꿈은 늘 전원에 가 있거든요. 농촌 또는 산촌에서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산촌에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네요.
김경선_서울

